2007년 인내천사상 충북대학교

특 별 강 좌

• 일시 : 포덕 148년(2007년) 9월 17일(월) 17시
• 장소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시청각교육실

천 도 교 종 학 대 학 원

천도교종학대학원

110-775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911호
전화 : 02) 720-3020, 전송 : 02) 739-4533
홈페이지 : www.chondogyo.or.kr

2007년 인내천사상 충북대학교

특 별 강 좌

• 일시 : 포덕 148년(2007년) 9월 17일(월) 17시
• 장소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시청각교육실

천 도 교 종 학 대 학 원

2007년 인내천사상 충북대학교
특 별 강 좌

목 차

一. 큰 일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집시다..... 김 동 환

一. 동학의 신분제 부정 논리와 실천운동..... 신 영 우

큰 일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집시다.

천도교 교령 김 동 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 갑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는 꿈이 있겠지요. 더러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요. 젊음은 인생의 황금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불타는 정열을 아낌없이 발휘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 하고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역사의 흐름속에 그 시대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큰 꿈을 품고 살아 가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죽어 버리면 그만인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오래오래 기억되고 그 명성이 빛나는 삶을 살다 간 사람도 많습니다. 며칠전 음성의 큰 바위골 석조공원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했던 분들의 석상이 수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잘 살았구나,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역사를 빛내기 위하여 세계평화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생각하고 일해 온 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암 손병희선생의 생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손병희선생의 동상이 지금도 세상을 근심하시는 듯 참배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병희선생님도 20세까지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날그날 주먹질로 시장바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그의 삼촌 손천민씨의 안내로 동학 천도교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보은 지역에서 병든 세상을 바로잡아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동학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감동하여 그날부터 해월 최시형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한결같이 동학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세상을 구하자는 꿈을 키워 갔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근세조선 말엽 조정에서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못된 양반들은 서민들을 짓밟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잘못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서양의 세력이 무서운 힘으로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무릎을 꿇고 중국을 믿고 국정을 의존해 왔던 약체 한반도는 불안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보국안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건만 진실로 보국안민에 앞장섰던 단체로는 동학뿐이었습니다. 그 시대상황을 알게 된 의암 손병희 선생은 젊은 혈기와 정의감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큰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며 동학에 입도하여 해월신사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백범 김 구 선생님도 황해도에서 힘없는 서민으로 세상을 원망하며 살다가 사람을 한울님같이 섬기며 서로 믿고 서로 공경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모인 동학의 소식을 듣고 동학의 최고 지도자 해월 최시형 선생을 뵙기 위해 황해도에서 충북 보은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해월신사 계시는 집 앞에서 허리 숙이며 인사하는 동학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감동받아 동학에 입도하여 18세의 젊은 나이로 황해도 동학 대접주가 되셨으며 그 꿈과 그 정

의감이 장차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시고 오늘날까지 만인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업적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술국치로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천도교인들을 총동원하여 자금을 만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독교와 불교와 함께 참여함으로서 거족적인 3·1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철저한 감시하에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자니 천도교대교당을 짓는다는 구실로 모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이후 백범 김구선생이 천도교대교당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천도교대교당은 독립운동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아니었다면 3·1 독립운동이 있을 수 없고 3·1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있을 수 없었으며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있을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입니다.

동학 천도교는 우리나라 정서를 품고 있는 순수한 자생종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역사를 알면 동학 천도교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되는데도 역사도 모르고 우리의 사상, 민족종교도 모르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가 모두 외래종교입니다. 외래종교라고 폄하하는 것도 아니며 외래종교를 신앙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어떤 종교를 신앙하던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고 우리 민족의 자생종교인 동학천도교는 어떤 것인지 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다른 종교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학 천도교는 1860년 수운 최제우 선생님에 의하여 창도된 동학의 天道입니다. 기존종교는 신은 천상에 따로 있으며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 의지하게 되고 심하면 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면 동학에서 말하는 神은 바꾸어 말하면 한울님은 천상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모시고 있다 나도 한울님을 모시고 상대방도 한울님을 모셨으므로 사람을 대할 때 한울님같이 하라. 거지가 네 집에 들어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고 하여라. 간단하면서도 인류역사에 선천과 후천을 가름 짓고 전쟁과 평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양반과 상민이 없어지고 만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진리라 확신합니다.

1860년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셨다는 시천주(侍天主)의 道를 득도하신 수운 최제우 선생은 자기 집에 있던 여종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한사람은 딸로 삼고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저 유명한 애브라함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그로부터 1년 뒤인 1861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링컨은 노예해방선언만 했지만 수운 최제우선생은 바로 실행에 옮겼으니 어쩌면 인류역사상 최초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보다 1년이 빠른 수운선생의 종을 한울격으로 승격시킨 거룩한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라면 흔히들 전봉준장군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만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그 원동력은 수운 최제우선생님의 광제창생 보국안민을 목적으로 한 동학사상이요. 그 운동에 참여하여 수많은 사람, 목숨을 바친 자들이 동학농민군이요 현장의 선봉대장 전봉준 손병희를 양두목으로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등이 모두 동학의 접주요 그 동학의 최고 지도자가 해월 최시형선생이시며 해월 선생은 바로 이 고장 충

북 보은에서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총지휘를 하시었으나 조정에서 불러 온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우리의 국운도 꺾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895년 3월 전봉준 장군이 동학의 동지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만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1898년 6월 해월 최시형님도 동학의 괴수로 사형당하셨습니다.

동학의 3세 교조로 의암 손병희선생이 도를 이어 받고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명하시고 그때부터 손병희선생의 영도아래 천도교가 우리 역사에 남긴 업적은 우리 민족이라면 몰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3·1운동이 끝난 후에도 상해 임시정부에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인재가 부족하고 민도가 얕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고려대학(보성전문), 동덕여대, 보성고등학교 등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지방에까지 많은 학교에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병희선생의 사위되시는 소파 방정환선생은 먼 앞날을 위하여 어린이를 소중히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도교에서 어린이 운동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근세사에 남긴 자취는 이루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만 지난날의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학 천도교가 할일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학도들은 앞으로 닥쳐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넓게 그리고 깊게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란 어떤 것일까?

첫째, 인간의 심성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때로는 남을 죽이는 약육강식의 동물격 인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인류사회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둘째로 개인간의 약육강식, 단체간의 약육강식, 국가간의 약육강식

마침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는 동안에 자연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공기가 오염되고 식수가 바닥이 나며 홍수와 한발의 피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심성에서 좌우됩니다. 지구를 좀 더 오래 지키는 것도 인간의 심성이며 인류사회를 급속히 파괴하는 것도 인간의 심성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취직할 것인가,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얼마나 향락의 삶을 누릴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한도시를 침몰시키고 오랜 한발에 생물이 죽어갈 때 그래도 나만은 살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화려한 생활도 화려한 꿈도 하나의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갑자기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되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나 하나 잘 살기를 바라는 소인배보다는 수운, 해월, 의암, 백범같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간직하자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행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울님을 내 몸에 모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한울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어머님의 살같이 소중히 아낄 수 있습니다. 물욕에 병들어 가는 마음을 천심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대함에 한울님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위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욕심 갖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주변의 물질적인 유혹은 종말에 아무것도 자랑으로 남길 것은 없습니다. 마약에 취하듯이 그때그때 내 주관도 없이 세상물결에 이끌려 가고 있었구나 자기가 재발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볼 줄 알고 이와 같은 속도로 계속 간다면 50년 후 백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그때의 현상을 가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져 보라고 서두에 말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생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내 말을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되시고 방향이 잡히면, 언제라도 내 가족같은 허물없는 마음으로 물어 온다면, 올바른 인생진로 손해 보지 않은 삶의 방향을 잡아 주고 그 방법을 말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어떤 종교의 선교차원이 아니라 험란한 세상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 뿐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이중에서 음성 석조공원에 석상이 세워질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이 꼭 나올 것이라 믿으며 내 말을 끝내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동학의 신분제 부정 논리와 실천운동

申 榮 祐 (충북대 사학과)

< 차 례 >

1. 머리말
2. 동학의 신분제 부정 논리와 실천
3.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부정 운동
4. 양반지배층의 대응
5. 맺는 말

1. 머리말

조선국가의 사회체제를 유지해온 중요한 기둥의 하나는 신분제였다. 이 신분제는 모든 사람을 상하 위계질서 속에 위치시켜서 지배와 피지배관계의 불평등성을 법과 관행으로 강제하는 사회제도로서 전근대 사회체제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신분제도는 그 뿌리부터 동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상천민이 줄어들고 양반층이 증대되는 역동적인 모습이었다. 이 같은 변화와 함께 신분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신분질서의 질곡 속에서 억눌려온 평민과 천민층에 의해 아래로부터 펼쳐온 여러 형태의 투쟁이 그런 흐름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는 貴賤 차별을 당연히 여겨온 인간관을 부정하고 농민에게 양반신분이 독점해온 관직을 부여해야 한다는 실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개화파가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신분제의 폐지를 商業立國의 전제로 구상하고 이를 법제화한 활동이 또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1)]

동학의 교리에서 확인되는 신분제 부정 논리와 동학농민군이 1894년에 전개한 신분제 부정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당시의 정권 담당세력인 개화파는 신분제 폐지 운동을 펼쳐온 동학농민군의 주장을 수용하여 갑오개혁에서 신분제를 폐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을 신분제와 관련해서 보면 피지배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근대체제를 변혁하는 역사발전의 중심축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19세기 마지막 시기에는 신분제의 엄격한 유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과 관행은 신분제를 국가제도의 기본토대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19세기 후반 동학의 신분제 부정 논리와 1894년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부정 운동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양반지배층이 이에 대응했던 논리와 반대운동을 간략히 검토하려고 한다.

2. 동학의 신분제 부정 논리와 실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사회 구성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커다란 변동은 오랜 중세사회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물결 속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신분변화였다. 관노비가 해방되어 상민이 되고, 상민이 양반신분을 취득하여 신분을 상승시켜갔다.

왕조정부는 합법과 비합법의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분제 붕괴 과정에 대해 비교적 융통성 있게 대처하였다. 그러한 변화가 왕실과 관료층의 이해를 직접 침해하는 긴급한 문제가 아닌 까닭도 있었고, 정부 재정의 확보와 관련한 정책으로 초래된 원인도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제 해체를 정당한 변화로 뒷받침하는 주장들은 여러 계통

---

1) 愼鏞廈, 1985. <1894년의 社會身分制의 폐지> <<奎章閣>> 9 (<<韓國近代社會史硏究>> 수록, 一志社)

에서 나왔다. 반계 유형원과 그의 사상을 잇는 여러 실학자들의 신분제 부정론이 한 줄기이고, 숱한 처형과 탄압 속에서 서양의 평등관념을 사회 저변에 보급해온 천주교의 역할이 또 한 계통이다.

그리고 1860년대 창도되어 1880년대 삼남을 중심으로 널리 퍼진 동학은, 이와는 또 다른 흐름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신분제를 부정하며 인간사회의 평등론을 내세운 것뿐 아니라 실천운동에 힘썼다. 한국 사회발전의 역사에서 신분제의 폐지에 이르는 변혁운동은 동학농민혁명을 핵심으로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학의 신분제 부정 운동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동학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다.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1894년에 역할을 한 동학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다르다. 신분제와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동학의 인간관과 신분제의 부정 논리 그리고 그 실천력의 인정에 소홀히 한다면 바른 파악이라고 볼 수 없다.

동학의 인간관에서 기초를 이루는 신 관념은 우리 고유의 전통신앙에서 최고 신앙의 대상이었던 한울님이라고 지적한 연구[2]는 주목된다. 외래종교가 들어와 유행함으로서 잃어버렸던 고유의 신앙대상이 동학에 와서 비로소 되살려지게 되었고, 유교 등 외래사상이 정당화해준 인간집단의 불평등성을 근원에서 제거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동학의 신앙대상은 '하늘(天)' '천주(天主)' '한울님'이다. 사람과 한울과의 관계는 각 시기마다 새롭게 해석해서 강조되고 있다. 그 중심 개념은 한결같이 敎祖 水雲 崔濟愚의 초기 저작과 설법에 온전히 들어있는 것이고, 창도 당시부터 그 성격과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학의 인간관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崔濟愚의 신분제 부정 논리는 제2세교주 海月 崔時亨에게 이어진다. 최시형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편다.[3]

---

2) 최동희, 1993 <우리 전통신앙과 동학 -그 최고 신앙대상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의 현대적 조명과 평가>>, 동학혁명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

그 논리는 '侍天主' '事人如天' '事人如事天'과 같은 용어에서 잘 나타난다. '侍天主'는 "한울님이 네 몸에 모셔져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는 사람은 한울이 인격적 존엄성을 부여한 존재이고, 또 하나는 한울 앞에 모두가 동등하다는 뜻이다. '侍天主'는 인간관이고, '事人如天' 또는 '事人如事天'은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 섬기듯이 하라는 실천 방법이다.

동학의 이러한 논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기존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바꾸는 작업으로 시작하고 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을 차별하는 관행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존귀와 비천으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런 발상이 널리 보급되면 신분제 사회의 계층 질서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동학은 신분 차별로 인해 고통 받던 사람들 속으로 급속히 전파되어 갔다.

상천민과 여성들에게 동학이 그려서 보여주는 사회는 하나의 이상향이었다. 양반과 상민의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생각을 고치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풍습을 만들며, 노비들을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여성이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되는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은 교조가 구상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갔다.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는 동학 안에서 먼저 실천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신분제를 결코 변할 수 없는 이치라고 생각하던 양반들에게 주목받았다. 1863년 상주의 道南書院은 동학의 신분제 부정을 위험시하는 통문을 이웃 서원에 보내고 있다.[4] 이 통문을 보면 양반 유생들은 동학이 실천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학에

---

3) 1865년 10월의 劍谷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人은 乃天이라. 故로 人은 平等하여 差別이 없나니 人이 人爲로써 貴賤을 分함은 是 天에 違함이니 吾 道人은 一切 貴賤의 差別을 撤廢하여 先師의 志를 副함으로써 爲主하기를 望하노라." (<<天道敎書>> 第二編 海月紳師 布德 6年)

4) "동학에는 반상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고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비천한 계층이 모여든다는 것이다. 또 그 전파력은 놀라울 정도여서 동학도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마을 한 향촌 전체가 차차 그 세력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세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신분제를 부정하는 실천 때문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다.

동학에 들어가면 '相敬相拜' 하여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서로 절하며 인사를 하고 같이 존경어를 썼다. 상전과 노비가 함께 입도해도 같이 절하고 존경어를 써야하는 분위기였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양반들도 입도해서 신분제를 부정하는 교리를 배우며 따랐다.

신분제사회에서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칭**이다. 벼슬을 한 양반이나 공명첩을 산 사람은 그 직함으로 불렸고, 상천민은 직함 아래에 '나으리'와 같은 **존칭**으로 양반과 상전을 불렀다. 동학에서는 이 호칭을 통일했다. 그것이 '接長'이다. 호칭을 하나로 통일한 것은 전례가 없는 보기 드문 사건이다. 이것은 도인들 서로 간에 신분질서를 청산하는 실천의 상징으로서 같은 호칭을 쓴 것이다.

향촌사회에 세거하던 양반층은 동학의 이러한 행태와 전파력에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동학은 邪學으로 간주되었고, 正學인 주자학의 가르침을 정면 부정하는 邪學은 금지되어야 했다. 더구나, 중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동학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지경까지 갈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천한 층뿐 아니라 빈한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1893년의 보은 집회에서 이러한 우려는 다시 확인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동학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여든 '접장'들이었다. 보은 집회에는 혼란한 시국에 의분을 참지 못하던 지사들도 모였으나 이 집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하층민들의 항거였다. 가난하고 비천한 세상의 불평세력이 보은 장내리에 모여들었다고 양호순무사 어윤중이 보고하였다.

동학에 입도한 모든 사람들이 侍天主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인간관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다. 뿌리 깊은 관행은 동학의 간부들 속에서도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천민이 동학의 높은 자리에 오를 때 거부의사를 나타낸, 1891년 南啓天 사건[5]에서 잘 나타난다.

---

5) <<侍天敎宗繹史>>

3.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부정 운동

동학이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평가가 어떠하든 동학 조직을 바탕으로 동학농민군이 결성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동학 조직에 들어가려면 入道의 형식을 거쳐야 했다. 입도한 사람은 道人이라고 불렸고 입도하지 않은 사람은 俗人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동학농민군은 스스로 道人이라고 불렀다. 도인들은 수련을 했다. 일상생활 중에도 염주를 돌리며 주문을 외웠고 집회에 모였을 때도 같이 주문을 외웠다. 동학 세력이 크게 증대된 여름 이후에도 양반과 상민이 서로 가리지 않고 존대말을 쓰고 절을 했다. 그것은 북접지역이든 남접지역이든 마찬가지였다.

양반층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동학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다. 동학의 包接 조직에서 都會를 열어 중요 문제를 논의하고, 각 마을의 접주 접사 그리고 성찰들이 무장대와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록은 무장 봉기를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모든 활동은 전 시기에 걸쳐 동학 조직을 중심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동학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결집한 사람들이 수도활동을 통해 교리를 익히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물론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것은 아니다. 짧은 시기 동안 한꺼번에 많은 수가 입도하였고 또 무장 봉기를 준비할 때 강제로 합류시킨 수는 더욱 많았다. 이들 중에는 동학 조직에서 통제하지 못한 농민군이 적지 않았다.

"이 세상 운수가 모두 동학 道에 돌아왔다고 하여 아무 인연이 없던 雜人들이 수천 수만 인이 신입하여 왔는데 그들 新入者는 修道하려는 마음은 만에 하나도 없고 단지 생각하고 행하는 일은 불법 행위로 사채를 강제로 받아내고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헤치며 심지어 남의 말과 곡식을 빼앗는 것만 주로 하니 이를 어찌 사람이

라 이르고 어진 백성이라 하리오."[6] 이것은 충청도 해미 태안 서산 등지의 사정을 전하는 10월의 기록이다.

전라도의 남접농민군이 재봉기한 이후 잇따라 일어난 전국 규모의 무장봉기에서 동학 조직에 합세해온 농민들의 수는 매우 많았다. 전봉준의 "기포할 때 寃民과 東學이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원민은 많았다"는 증언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비슷했으리라 생각된다.

앞의 자료는 동학 조직에 합세한 농민들이 독자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접 영향권 속에 있었던 지역의 실정이었다. 그러한 사정은 여러 지역에서 같았을 것이다. 동학 교단에서 나온 통유문 중에는 包接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활동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다.[7] 이른바 「金石之典」이 그것이다.

그러면 이들 신입도인이나 강제로 합류하게 된 농민들이 지향하던 사회개혁의 방향은 달랐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당시의 상황 속에 동학에 합류하게 된 것을 요행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다.[8] 또 동학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많은 농민들은 동학 조직이 주도하는 여러 활동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9] 평민과 천민 신분 그리고 전호농민들이 양반 토호들과 지주층에게 품고 있던 반감을 동학농민군이 나서서 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리 신분 중에 동학에 가담한 사람들은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孫天民처럼 동학 고위 간부로 활약한 인물도 있고, 군현의 읍내를 장악했을 때 邑政을 장악하는 등 중요 역할을 한 경우도 많다. 官屬들이 동학에 많은 수가 들어가 있는 군현에서는 지방관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 동학에 가담한 향리 신분은 이방 호장 등 중요 직임을 맡지 못했던 계파나 하급 吏屬으로 지내 그 처지가 농민들과 다름이 없었던 층이 많았다.

---

6) <<趙錫憲歷史錄>>, 10월 기록.

7) <<侍天敎宗繹史>> 第2編 下, 8월 기록.

8) 신용하, 윗글, 115면. <<東學亂記錄>> 下, 328면의 무안현감 보고문.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경상도 상주지방 농민 사정을 탐지한 보고문.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철폐활동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처음부터 대규모 군사력을 이룬 남접농민군의 활동 모습과 뒤늦게 세력을 키운 전라도 이외의 지역의 활동 모습은 달랐다. 전라도지역은 봉기 목표의 하나로 신분문제를 들고 나왔고, 다른 지역은 동학 조직이 점차 세력을 키워가면서 양반신분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형태로 활동을 벌여나갔다. 남접농민군이 공표한 포고문과 개혁안은 그 방향을 보여준다.

3월 25일 白山에서 포고한 「4대 名義」 가운데 "병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權勢家와 貴族을 모두 없앤다"는 항목이 나온다. 잇따라 3월 27일 내놓은 격문에는 "양반과 부호들에게 고통받는 민중과 方伯 守令들 밑에서 굴욕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者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양반에 대한 남접농민군의 공세 의지를 드러낸다.

집강소의 폐정개혁 요강은 5개 조항에 걸쳐 구체적인 신분제 폐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동학농민군이 양반신분에 대해 취한 활동상을 주목하면 개혁의 방향을 알게 된다.

황현은 <<梧下記聞>>에서 각지에서 신분투쟁을 벌인 常賤民의 활약 사례들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인심을 잃은 양반들이 공세의 대상이 되었으나 갈수록 단지 양반 신분인 까닭에 집중 공격을 받는다. 2차 봉기를 준비할 때는 더욱 심해진다. 동학도들은 兩班 士族을 만나면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을 주었다. 말뿐 아니라 冠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매를 치기도 했다.

이것은 양반 신분을 상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활동이었다. 그 주요 방식은 동학에 입도시키는 것이다. 동학에 들어오면 스스로 양반의 지위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학에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로 입도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동학 조직이 압도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경상도 김산에서는 "평일 서로 알던 사람이라도 얼음과 숯이 서로 용납못하는 것과 같았고 양반(良善之人)을 모해하려고 해서 오직 화가 미치는 것을 무서워했으며 가장 두려운 사람은 얼굴을 아는 동학도였다"고 한다.[10]

천민 신분의 해방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솔거노비는 동학에

입도함으로써 스스로 신분을 해방시켰다. 상전에게 노비문서를 불사르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반 상전들은 동학농민군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위에 평소 거느리던 노비들이 나가버려서 자신의 손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상태가 나았던 것이고 노비들의 보복으로 곤욕을 치루는 일이 많았다. 才人과 白丁 등 천민들이 무장을 해서 군사편제화했을 때 가장 용감한 부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신분해방운동은 양반을 상민 지위로 끌어내리는 방식과 천민의 지위를 상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개화파의 신분제 폐지 방향과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1894년 6월 28일 軍國機務處가 의결한 일련의 개혁조치에는 개화파의 신분제 폐지 방안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門閥 班常의 等級을 劈破하고 貴賤에 관계없이 人材를 選用한다"는 것으로 양반의 기존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이 누렸던 관직 임용의 특권을 상민들에게도 확대한다는 성격을 가진다.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부정 운동의 방향은 실학을 집대성한 茶山 丁若鏞의 인간관과 더욱 가깝다. 茶山은 인간의 평등관을 전제로 양반이 갖는 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양반도 생산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노비를 천대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더 나아가 폐지하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신분 제도의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각 신분에 대한 개혁안을 강구하였다. 즉 책상 위에서 글을 통해 신분론을 썼을 뿐이었다. 이 부분에서 동학과 크게 차이가 난다. 동학은 평등론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천을 전제해서 신분제를 부정하였고, 동학농민군이 결성되어 활동하던 때에는 직접 신분제 폐지운동에 나섰다.

4. 兩班支配層의 對應

---

10) 呂中龍, <<甲午以後日記>>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부정은 불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이념 제공뿐 아니라 실천력을 통해 실천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양반지배층에게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양반층의 대응은 그들의 처지와 생각에 따라 달랐다. 향촌사회의 명문 양반들은 여름이 다가도록 일방적인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의 파괴에 두려움을 나타냈고, 常賤民이 양반과 심지어 상전을 욕보이는 행위에 분개하였다. 양반지배층은 반격의 기회를 뒤늦게 찾았다.

동학농민군은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불법 점거하여 국왕을 인질로 삼은 소식을 들은 즉시 무장봉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세력을 이 땅에서 축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반지배층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양반들까지 동학농민군에 강제로 들어오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軍需錢과 軍需米로 사용할 돈과 곡식을 집중해서 거둬들였던 것이다. 동학 조직을 중심으로 떼를 지은 상천민이 양반층에 대한 신분투쟁도 한층 강화되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보군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최대의 반일세력인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1개대대 병력을 증파하였다. 새로 정권을 잡은 개화파는 京軍 정예병을 동원해서 일본군과 동행하도록 했다. 바로 이 시기에 향촌사회에서 세거하던 양반 보수세력이 스스로의 역량을 결집해서 각지에서 민보군을 결성하였다. 京軍이 파견되고 일본군이 개입하여 동학농민군의 주력이 무너지게 되면서 여러 군현에서 민보군이 동학 조직을 진압할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향촌사회의 양반층 속에는 진압군측에 가세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동학에 입도해서 접주 접사 등 주요 직임을 맡아 활동한 사람이 있었다. 그밖에 강제에 못 이겨서 들어가거나 家産을 지키는 방편 등 여러 이유로 동학농민군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동학에 입도한 한 사람들은 자진 합류자나 타의에 따른 합류자나 막론하고 이른바 '相敬相拜'를 통해 신분제를 부정하는 운동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또 李裕相과 같이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한 義軍을 일으켜서 동

학농민군의 大義에 찬동하여 합류한 양반도 있다. 이런 경우 일본 침략에 맞서 싸운다는 목표에는 일치했지만 신분제 폐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같았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진압에 나선 京軍은 농민군 가담자를 붙잡으면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이 때 주요 죄목의 하나로 든 것이 신분제 부정 운동이었다. 壯衛營 領官 李斗璜은 보은 장내리를 공격하러 가면서 10월 13일 발한 曉諭文에 "平等을 거짓 되게 칭하면서 명분을 무너뜨린 것"을 지적했다. 개화파 정권이 문벌과 반상의 등급을 없앤다면서 법을 바꾼 지 3개월여가 지난 뒤의 일이다.

민보군은 향촌사회의 신분질서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그런 까닭에 綱常 윤리를 범한 농민군 가담자를 체포하여 그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처형하고 있다. 상주 소모영에서 처형한 동학농민군의 주요 죄목은 "犯分常亂賊" "手打士族" "劫奪班婦" "以奴辱主" "罪犯綱常" 등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보군이 활약한 모든 군현에서 같았다. 동학농민군의 신분투쟁에 시달린 향촌사회의 지배층에게는 정부에서 공포한 班常 차별을 금지한 법 개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가진 근대무기의 화력은 남북접 연합농민군의 주력을 단기간에 깨뜨릴 만큼 위력이 있었다. 그래서 공주 전투에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본군과 관군은 뒤 쫓으며 살륙전을 벌였다. 동학과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신분제 부정운동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다. 진압군과 지방 관아는 종래와 같은 사회질서를 복구하려고 했다.

兩湖都巡撫營은 농민군을 평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十家作統을 실시하도록 각 지역에 傳令을 내렸다. 순무영 종사관 鄭寅杓가 만든 <十家統規>의 첫번째 항목은 각 民戶에게 살고 있는 집의 대문 위에 戶口 상황을 기록한 牌를 걸도록 의무화했다. 그 牌에는 신분과 직업을 명시해야 했는데 朝官은 官號를 쓰고 士人은 士人이라고 기재하고 農工商은 각각 農民 工民 商民이라고 쓰게 했다. 이것은 신분질서를 지켜나가는 규정이기도 하였다.

옛 질서 회복을 위한 방책으로 강구된 향약도 신분질서의 확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라도 감영에서 보급한 <鄕約章

程>은 官의 위력을 배경으로 양반 신분이 향촌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주로 常民들의 생활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班常 신분 타파를 내세운 동학농민군의 이념과 그 영향력을 철저히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5. 맺는 말

한국 전근대사회를 유지해온 기본 특징의 하나인 신분제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을 전기로 해서 법제와 사회관행 양면에서 점차 소멸되기에 이른다. 동학농민군은 사회 내부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철저한 실천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운동은 신분제 부정 논리를 현실 사회에서 실현시키려는 동학의 실천력에 크게 힘입은 것이고, 오랫동안 신분질서의 질곡 속에 억압받아온 하층민의 투쟁이 집약된 것이다.

동학은 조선후기 급변하던 사회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産物의 하나였다. 동학 조직은 창도 초기부터 인간사회의 평등 논리를 제시하고 신분제를 부정하는 실천운동에 적극 나섰다. 양반지배층은 비천한 계층이 모여들어 세력을 키우던 동학이 동시에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것을 위험시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에서 폐정개혁을 요구하며 무장봉기에 나섰는데 그 주요 항목이 신분제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무장활동을 둘러싸고 교단과 남접농민군 지도부의 견해는 달랐지만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는 같았다. 교단의 영향 아래 있는 충청도 대부분의 군현과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의 면리지역에서는 신분투쟁이 격렬하게 펼쳐졌다.

동학의 신분제 부정 운동은 방향이 뚜렷했다. 그것은 양반을 상민 지위로 끌어내리고 천민의 지위를 상승시킨다는 방향이었다. 치열한 동학농민전쟁의 와중에서 법제를 개정한 개화파의 신분제 폐지 방안은 동학농민군의 방향과 차이가 났다. 천민은 해방시키지만 양반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상민에게 금지된 관직 임용의 기회를 풀어주어 신분질서를 해체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후 신분제는

바탕에서 무너졌으나 사회관행과 관념상 위로부터 이루어진 개혁의 잔재는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동학농민군의 신분제 부정 운동은 원칙상 실학자들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동학과 동학농민군은 현실에서 적극 실천했다는 면에서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관군·민보군에게 진압된 후 향촌사회의 안정책은 신분질서의 회복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양호도순무영의 방침과 각 군현에서 오가작통과 향약으로 지배질서를 지켜나가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강력했던 투쟁 흐름과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던 사회 흐름을 양반지배층이 오래도록 막을 수는 없었다. 일제 침략과 이에 저항하던 시기에도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동학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해주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전통 위에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 살게 되었다.